

A different interpretation of the preface to Hunminjeongeum by King Sejong

LEE Hyeon-hie & LEE Soo Yeon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1.

오늘 발표는 문헌 훈민정음의 서문의 몇 구절을 재해석하여 중세 한국에서의 문자생활의 한 국면을 생각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훈민정음 서문의 한문 원문과 그 15세기 번역문은 다음과 같다.¹⁾

(1) 15세기의 한문 문장

國之語音異乎中國與文字不相流通故愚民有所欲言而終不得伸其情者多矣予爲此憫然新制二十八字欲使人人易習便於日用耳²⁾

(2) 15세기의 한문 문장에 한자음과 구결을 단 문장

國(·국)之(징)語(:어)音(훔)·이 異(·잉)乎(훙)中(똥)國(·국)·하·야 與(:영)文(문)字(·
쥬)·로 不(·불)相(샹)流(류)通(통)홀·썩 故(·공)·로 愚(웅)民(민)·이 有(:윙)所(:송)欲
(·옥)言(언)·하·야·도 而(싱)終(중)不(·불)得(·득)伸(신)其(깡)情(깡)者(:장) 多(당)矣(:
윙)·라 予(영) 爲(·윙)此(:충)憫(:민)然(션)·하·야 新(신)制(·제)二(·싱)十(·썩)八
(·뽕)字(·쥬)·하·노·니 欲(·옥)使(:승)人(신)人(신)·으·로 易(·잉)習(·썩)·하·야
便(뽕)於(형)日(·실)用(·용)耳(:싱)니·라

(3) 15세기 한국어 번역문

나·랏 :말썽·미 中(똥)國(·국)·에 달·아 文(문)字(·쥬)·와·로 서르 스몏·디 아·
니홀·썩 ·이런 전·츠·로 어·린 百(·빅)姓(·성)·이 니르·고·저 ·홀 ·배 이·셔
·도 ㅁ·츄·내 제 ·쁘·들 시·러 퍼·디 :몏홀 ·노·미 하·니·라 ·내 ·이·를
爲(·윙)·하·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믈여·똥 字(·쥬)를 밍·ㄱ노·니 :
사름:마·다 :히·여 :수·비 니·겨 ·날·로 ·뿌·메 便(뽕)安(한)·키 하·고·저 홀
썩르·미니·라

1) 밑줄은 다 발표자가 친 것이다. 앞으로 예문에 그어진 밑줄은 다 발표자가 행한 것임을 미리 밝혀 둔다.
2) 구두점과 권성을 덧붙인 문장으로 제시할 수 있으나 현재는 이 부분이 떨어져 나간 상태의 책자만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붙여 적어 놓는다.

위의 예문 (1)에 대한 이해와 독해의 편의를 위하여 재조정된 문장이 (2)이며, (2)를 바탕으로 하여 다시 15세기 한국어로 번역한 문장이 (3)이다. 오늘 발표의 초점은 주로 (1), (2), (3)의 밑줄친 부분에 맞추어진다.

2.

이에 대한 기존의 현대어 번역은 이미 S.-o. KIM (2008)과 H.-h. LEE (forthcoming) 등에서 자세히 검토되었거나 검토되고 있으므로, 오늘 발표에서는 먼저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았거나 다루어지지 않은 이른 시기의 현대어 번역문 두 가지를 제시하고, 이어서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현대어 번역문 세 가지만을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주시경이 1907년에 쓴 글의 일부와 권덕규가 1923년의 책에서 다룬 내용의 일부를 제시한다.

(4)a. 正音序解釋

此聖序를 敬讀호고 其義를 竊想호니 國之語音이 異乎中國이라 호심은 我國과 支那는 天然의 區域이 不同호미 氣候水土와 性質習尚도 相異호여 支那의 文字가 我國에 不
適함으로 流通치 못한다 호심이니 我國에서는 我國에 適宜호 文字가 有호여야 잘 流
通되리라 호심이요 故로 愚民은 有所欲言而終不得伸其情者 多矣라 호심은 支那文
은 我國人民이 學習호기 極難호여 智者가 안이면 不能함으로 其餘凡常호 愚者는 다
至極히 抑屈함을 抱호고도 其情을 記出치 못호여 伸冤호 道가 업다 호심이니 支那의
文字가 我國에서는 習用호기 極難호여 流通되지 못호는 證據와 其害의 曲盡호 情景
을 例舉호심이요 그 多字는 世上에 智者는 少호고 愚者는 多호미 國民의 多數가 能
히 文字를 習用치 못호여 其害가 隨多호다 호심이요 予 爲此憫然이라 호심은 或
國에서 我國에 不適호 漢文을 用함으로 智者라도 其文字를 學習호노라고 歲月을 過
費호여더 藝智호여지기에 害가 되고 愚者는 智호여질 道가 全塞호여 人民의 學識과
才藝가 不興호고 國家의 政事가 未洽호여 全國에 莫甚호 害가 되고 他國文을 永用호
면 此害도 永久호여 民國萬世에 大弊가 됨을 憫然히 역이노라 호심이요 新制二十八
字호니 欲使人人易習호고 便於日用이로라 호심이요 此二十八字는 我國에 適當호여
智愚貴賤貧富老少男女無論호고 學習호기 易호며 日用호기 便호다 호심이라 [Si
Gyeong JU, “They must respect their language and writing (必尙自國文言),”
Hwangseong Newspaper, No. 2446, 1907. 4. 5.]

- b. 나라말이 中國과 달아 그 글씨와로 서르 사뭇지 아니할새 무식한 百姓이 말하고저
함이 있어도 제 뜻대로 못하는 이가 하나라 내 이를 딱하게 너기어 새로 스물여덟
글씨를 맨그노니 사람마다 쉬이 닉이어 날로 쓸에 便호게 하고저 할 따름이니라
[Deok Gyu KWON, *The some Details of Korean Language and Writing* (朝鮮語
文經緯), Gwangmunsa Press, 1923, p. 191]

(4a)에서 이미 1907년에 주시경이 매우 당당한 논조로 세종의 서문을 해석하고 있음을 살

필 수 있다. 지금까지의 현대어 번역문은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이 번역문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1923년의 권덕규의 번역문인 (4b)는 매우 의고적인 문체로 되어 있다. 특히 개화기부터 1920년대까지 널리 쓰이던 ‘글씨’라는 단어가 들어 있는 점이 두드러진다. 그 당시의 ‘글씨’는 “쓴 글자의 모양”의 의미로는 극히 드물게 사용되었고, 주로 “한글 자모”나 “한자 한 글자”의 의미로 사용되었다.³⁾

다음은 최근에 이루어진 현대어 번역문 세 가지이다.⁴⁾

(5a).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않으므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라. 내가 이것을 가엾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Seul-ong KIM 2009: 261)

b.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와 서로 통용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백성(愚民)들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펼 수 없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딱하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들었으니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 일상의 쓰임에 편리하도록 할 따름이다. (Doo-Hyeon PAEK 2009: 84)

c. 조선의 말소리와 중화의 말소리가 달라서 한자로 서로 통하지 않아서 이를 잘 모르는 대부분의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도 결국 제대로 자기의 생각을 담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많다. 내가 이것을 불쌍하게 생각해서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니 서리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사용하는 데 편안하게 하고자 한다. (Min-Jeong SEO 2011: 43)

(5a, b)는 직역체로 되어 있고, (5c)는 의역체로 되어 있다. S.-o. KIM (2008)은 (5a)를 ‘a tentative of the standard translation’이라고 부르면서 제시하였다. (5c)에서는 ‘人人’을 “서리”로 번역한 점이 특이하다.⁵⁾

(5a, b, c)에서는 다 ‘文字’를 ‘한자’로 번역하였다. 각주 (4)에서 언급된 일본에서의 번역문들 가운데 NOMA (2010)과 ITO (2011)은 ‘文字’를 ‘漢字漢文’으로 번역하였다. 뒤에서 언급될 바와 같이, ‘文字’가 두 종류로 나뉘는 인식을 인식하여 그렇게 번역하였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잘 알 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 ‘漢文’이 원래 일본에서 사용되던 용어로서, 한국에서는 1894년의 갑오경장 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음을 언급해 둔다. 원래 조선에서는 ‘漢文’이라는 용어 대신에 ‘眞文’을 사용하였다.⁶⁾ 그에 비하여, 조선시대에 ‘漢字’라는 용어는 일찍부

3) N. Hawthorne의 장편소설 *The Scarlet Letter* (1850)가 한국에서 ‘주홍글씨’로 번역된 것은 이에 말미암는다. 1920년대 ‘글씨’의 쓰임새에 대하여는 H.-h. LEE (forthcoming)를 참조하기 바란다.

4) 그 외에, 최근에 일본에서 이루어진 중요한 번역문들이 있다. NOMA (2010), ITO (2011), E. S. JO (2010) 등이 그것이다. 이 번역문들도 한국에서 이루어진 것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내용이 거의 같으므로 여기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5) 이 번역은 세종 당대의 시대상황과 관련지어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6)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는 D. I. JO (2010: 29~31)을 참조하기 바란다. 실제로 1876년에 일본과 체결한 병자수호조규(1876)에서만 해도, ‘第三款, 嗣後兩國往來公文, 日本國其國文, 自今十年間, 別其譯漢文一本, 朝鮮國用眞文.’이라 하여 일본에서는 “classic Chinese”의 의미로 ‘漢文’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데 비하여, 조선에서는 ‘眞文’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큰 차이를 보였다.

터 사용되었다. 석보상절 서문의 '漢字로 문져 그를 밍글오 그를 곧 因ᄃ야 正音으로 밍글
씩 곧 因ᄃ다 ᄃ니라'(6a)라는 협주문을 한 예로 들 수 있다. '便於日用'의 '便'에 대한 번역
어는 '편하다'[(5a)], '편리하다'[(5b)], '편안하다'[(5c)]로 나뉘어져 있다. 이에 대하여는 뒤
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훈민정음 서문의 영어 번역문은 대표적으로 다음의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6)a. The sounds of our country's language ar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Middle Kingdom and are not smoothly adaptable to those of Chinese characters. Therefore, among the simple people, there are many who have something they wish to put into words but are never able to express their feelings. I am distressed by this, and have newly designed twenty-eight letters. I desire only that everyone practice them at their leisure and them convenient for daily use. (Gari K. Ledyard, *The Korean Language Reform of 1446*. p. 277)

b. Since the phonological system of Korean is different from that of Chinese, the Chinese characters that describe both Chinese and Korean cannot be used in communication. Accordingly, there are many among the general public who cannot express themselves in Chinese characters even though they have something they want to say. Feeling sorry for this, I have newly created twenty-eight letters because I want our people to learn them easily and use them conveniently everyday. (*Hunmin jeongeum written plainly so as to be understood by everyone*, compil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2008, pp. 117-118)

c. The speech sounds (語音) of our country's language ar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Middle Kingdom[China] and are not communicable with the [sounds of] Chinese characters. Therefore, when my beloved simple [illiterate] people want to say something, many of them are unable to express their feelings [in writing]. Feeling compassion for this I have newly designed twenty-eight letters, only wishing to have everyone easily learn and use conveniently everyday. (Sek Yen Kim-Cho, *The Korean Alphabet of 1446: Expositions, OPA, the Visible Speech Sounds, Annotated Translation, Future Applicability*, Humanity Books & Asea Culture Press, 2002, p. 198.)

d. The speech of our country, being different from those of China, cannot be expressed with Chinese characters. Therefore, there are many people, simple commoners, despite wanting to have their say, who are unable to fulfil their desire. Finding this pitiful, I am creating anew twenty-eight characters, no more than to make it convenient for all people to easily learn and use them everyday. (Seul-ong KIM, *King Sejong and Study on Hunminjeongeum*, Jisiksaneopsa Press, 2009, p. 268)

‘文字’는 다 ‘(the) Chinese characters’로, ‘便’은 다 ‘convenient’ 또는 ‘conveniently’로 번역되었다.

오늘의 이 발표는 이 가운데 위의 밑줄 친 부분을 실제 한국어에서의 쓰임새와 관련하여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3.

여기에서는 ‘與文字不相流通; 與文字로 不相流通홀씩; 文字와로 서르 스몓디 아니홀씩’ 부분에 주목하기로 한다. 먼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文字’의 성격을 살핀다. 최근에 훈민정음 서문의 ‘文字’를 “漢字”(“Chinese chracter”)로 번역하면 한국어가 한자와 통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해되어 문맥이 어색해진다는 점을 지적하고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文字’를 Hong (2008, 2012)에서는 “한문구” 혹은 “구결이 달린 한문”으로 해석하였고, Jeon (2009)에서는 공증문서나 증빙문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⁷⁾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한국어에서 사용되는 단어 ‘文字’에 두 종류가 있음을 인식해 왔다. 그러한 준별은 남북한의 사전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제2음절 초성의 경음화 여부와 관련하여 그것이 나누어진다는 사실은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던 듯하다. [munj’a]는 “letter, character”의 의미를 가지고, [munja]는 “phrase or sentence or text or document” 등 단어보다 큰 단위를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H.-h. LEE 2012). 이와 같은 두 가지 ‘文字’에 대한 준별은 이미 1920년대의 글들에서도 행해진 바 있다. 대표적으로, 권덕규의 저서 조선어문경위 (1923)에는 ‘문入자’와 ‘문자’가 구별되어 표기되어 있다. 전자가 “낱글자, 자모”의 의미로 쓰였고, 후자가 “단어보다 큰 단위”의 의미로 쓰였다.⁸⁾

이렇게 볼 때, 최근의 새로운 논의들은 훈민정음 서문에 사용된 ‘文字’는 낱 글자 수준의, [문짜]의 음성실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두 음절 이상의 성어·문장·텍스트 등을 이루는 단위인 [문자]의 음상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한 것이라고 재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⁹⁾

‘國之語音 --- 與文字不相流通’은 ‘NP₁與NP₂相通’ 구문이라고 단순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구문이 조선시대 문헌에서 그 당시의 한국어로 번역된 것은 훈민정음 서문의 것이 유일하다. 그 번역문인 ‘나랏 말쓰미 --- 文字와로 서르 스몓디 아니홀씩’도 ‘NP₁-이 NP₂-와로 스몓-’ 구문이라고 단순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중세 한국어 및 근대 한국어 문헌에서 ‘스몓-’ 구문이 ‘NP₁-이 NP₂-와로 스몓-’의 논항구조를 보이는 문장도 이 훈민정음 서문의 것이 유일한 예이다. ‘流通’에 대한 협주문은 ‘流通은 홀러 스몓출 씨라’ (1b)로 되어 있으나, 그 번역문에 ‘홀러’는 반영되어 있지 않고 ‘스몓-’만 반영되어 있다. 한문 원문과 구결문, 그리고 번역문이 서로 간에 조화롭지 못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중세 한국어의 ‘스몓-’은 자동사와 타동사의 두 가지 용법을 다 가지는 동사로서 그 논항구조는 ‘NP₁-이

7) H.-h. LEE (2012)도 JEON (2009)와 유사한 견해를 보였다.

8) 특이한 것은 후자의 ‘문자’에 해당하는 대상을 한자어뿐 아니라, ‘아버이, 오누’ 등의 고유어에까지 적용하였다는 점이다.

9) 여기서 한 마디 더 언급해 두고 싶은 것은 현대어에서 제2음절의 초성이 경음화하는 ‘文字’가 조선시대에 “글자”(“letter, script”)의 의미로는 사용되고 있었지만, “한자”(“Chinese character”)의 의미로 사용된 것은 19세기 이전의 조선시대 기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이 사실에 대한 보다 정밀한 탐색이 추후에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발표자가 찾은 최초의 예는 승정원일기 1873년 5월 16일 기사인데, 거기에는 ‘文字’와 ‘諺書’의 대립이 이루어져 있다.

NP₂-에 스몯-’이나 ‘NP₁-이 NP₂-를 스몯-’로 실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자, 즉 자동사의 용법을 보일 경우, 논항구조가 ‘NP₁-과 NP₂-이 (서르) 스몯-’로 실현되어 일종의 상호구문을 이룬다. 이 점은 한문 ‘NP₁與NP₂相通’ 구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與NP₂’는 서술어 ‘相通’의 공동격 논항인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고, ‘NP₁與NP₂’, 즉 ‘NP₁ and NP₂’라는 접속명사구가 ‘與NP₂’는 서술어 ‘相通’의 행동주 논항인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는 것이다.

중세 한국어의 ‘NP-와로’ 구성은 중의적 성격을 가진다.

- (i) 조사 ‘로’는 잉여적으로 표시된 것이고 조사 ‘와’가 공동격이라는 실제적인 문법적 의미를 담당한다.
- (ii) 주로 NP가 복수적인 것이거나 나열된 것으로서 조사 ‘와’는 접속조사인데 그것은 마지막 명사구에 잉여적으로 표시된 것이고 실제적인 문법적 의미는 조사 ‘로’가 도구격이라는 실제적인 문법적 의미를 담당한다.

‘文字와로 서르 스몯디 아니홀썻’에서의 ‘文字와로’는 (i)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현대어로 번역할 때, “文字로(써) 서로 통하지 않는다” 식으로 번역해서는 안 되고 “文字와 서로 통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번역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NP₁與NP₂相流通’¹⁰⁾ 구문이 들어 있는 문장 두 가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구문 유형은 훈민정음 서문 외에는 당대의 언어로 번역된 적이 없었다.

- (7)a. 吾聞文字興喪。與氣數相流通。(A Collection of Master Rosa's Works, Vol. 20, “The Preface to Reissued *Gijaji*,” a_{310_453c})
- b. 而元來愚鈍之性。久廢講習之工。心地茅塞。與文書義理。不相流通。(A Collection of Master Jesan's Works, Vol. 11, “A Reply Letter to the Nephew Unyak,” a_{206_406a})

(7a)는 긍정문으로서 “나는 문서가 흥성하고 쇠퇴하는 것은 기수와 더불어 서로 통한다고 들었다”, 또는 “나는 문서가 흥성하고 쇠퇴하는 것과 기수는 서로 통한다고 들었다”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고, (7b)는 부정문으로서 “원래 우둔한 성품에다가 오랫동안 강습의 공부를 하지 않은 탓으로 마음이 꼭 막혀, 그 마음이 보내주신 글의 뜻과 서로 통하지 않습니다.”, 또는 “원래 우둔한 성품에다가 오랫동안 강습의 공부를 하지 않은 탓으로 마음이 꼭 막혀, 그 마음과 보내주신 글의 뜻이 서로 통하지 않습니다.”의 의미를 가진다.

이제 우리는 ‘國之語音이 與文字로 不相流通홀썻’라는 구절과 ‘나랏 말썻미 文字와로 서르 스몯디 아니홀썻’라는 구절이 의미해석상 ‘國之語音과 與文字-{왜, ㅁ} 不相流通홀썻’라는 구절로도 바뀔 수 있으며, ‘나랏 말썻과 文字-{왜, ㅁ} 서르 스몯디 아니홀썻’라는 구절로도 바뀔 수 있음을 가대할 수 있다. 우리는 미지향 X는 “한자”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문서” 등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되어야 하는지 파악해 볼 수 있다, ‘語音相通’, ‘語音不通’, ‘語音莫通’ 등의 구절은 구어가 통하거나 통하지 않음을 문제삼는 표현이라고 할 것이다. 그에 비하여 ‘其會計報司平府, 其文字相通格式, 詳定施行.’(*The True*

10) 여기서의 ‘流通’은 “막힘없이 흘러 통함”이나 “기운과 기운이 서로 통함”의 의미를 가진다.

Record of the Joseon Dynasty, the year of 1402. January 16th))에서의 ‘文字相通’은 문어인 문서가 서로 통하지 않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파악하면, ‘國之語音이 與文字로 不相流通홀썩’라는 구절과 ‘나랏 말썽미 文字와로 서르 스 못디 아니홀썩’라는 구절은 (i) 구어인 한국어와 (ii) 문어를 담고 있는 문서, 이 두 가지가 중국과 서로 통하지 않음을 표현하고 있다고 파악할 수 있다.¹¹⁾ 전자는 역관에 의하여 유창한 통역이라는 절차를 거쳐 해소되어야 하며, 후자는 중국과의 외교관계상 주고받던 ‘吏文’에 대한 정확한 학습 및 작성을 통하여 해소되어야 한다.

4.

이제 ‘便於日用’에 대하여 언급하기로 한다. 한자 ‘便’은 일종의 다의형태소인데, 그 용법이 매우 많아, 성조의 차이를 가지고서도 구분하기 매우 어려운 한자이다. ‘便於日用’의 ‘便’에 대하여는 이미 AHN (2007)에서 상세하게 고찰하여 “편리하다”의 의미가 아니라 “편안하다”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이 구문에서 ‘便’의 의미가 “편리하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은 ‘便’ 자체의 의미파악 외에도 그것이 포함되어 구문 전체의 성격에서도 쉽게 파악될 수 있다. ‘便於日用’은 “일용에 있어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便’의 경험주는 사동구문 ‘欲使人人易習便於日用耳’에서의 ‘人人’이다. 중세 한국어 번역문에서는 ‘사름마다 히여 수비 니겨 날로 뿌메 便安키 호고져 홀 썩르미니라’에서의 ‘사름마다’가 ‘便安호-’의 경험주가 된다. 중세 한국어의 형용사 ‘便利하다’나 현대 한국어의 ‘편안하다’는 그 주어가 경험주가 아니라 대상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도 ‘便於日用’의 번역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다.

‘便安’은 중세 한국어와 현대 한국어에서 동일 한 용법을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자어 ‘便利’는 중세 한국어 문헌에서는 명사로서는 “똥오줌”의 의미를 가지고, 형용사로서는 “편하고 이롭다”의 의미나 “편하고 날래다”의 의미나 “편하고 영리하다”의 의미를 가진다.¹²⁾ 이것은 현대 한국어에서 형용사 ‘편리하다’가 “편하고 이롭다”의 의미 외에, “이용하기에 쉽다”의 의미가 더 추가되어 있다는 점과 크게 차이가 난다.¹³⁾

다음은 ‘便利’가 “똥과 오줌”의 의미를 가지는 중세 한국어 문헌에서의 예들이다.

(8)a. 便利는 똥 오조미라 (*Weolinseokbo* 23: 29b)

b. 便利는 오줌 똥이라 (*Weolinseokbo* 13: 62b)

‘大便利’나 ‘小便便利’ 같은 구절도 이와 일정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앞에서 ‘便於日用’의 ‘便’의 번역어로 형용사 ‘편하다’가 사용된 사례를 살핀 바 있

11) 여기에서는 ‘語音’이라는 용어가 경우에 따라 ‘語訓’과 통하기도 한다는 사실은 고려하지 않았다. ‘語訓’은 ‘語音’ 외에 ‘語態, 語格, 語套’로도 달리 표현되는데, ‘어보, 말씨’ 등과도 유의관계어

12) ‘便利’가 중세 한국어 문헌의 번역문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便利’의 의미는 당대의 언어로 번역되지 않은 한문 문장을 통하여 파악된 것이다.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여기서는 그 구체적인 용례를 들지 않았다.

13) “이용하기에 쉽다”의 의미가 언제, 어떻게 덧붙여졌는가를 살피는 작업은 여기서 행할 수 없다. 앞으로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에서의 ‘便利’의 용법과의 대조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 그런데 형용사 ‘편하다’는 중의성을 가지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i) ‘NP-이 편하다’의 논항구조를 취할 때에는 ‘편하다’가 “몸이나 마음이 거북하거나 괴롭지 아니하여 좋다.”의 의미를 가진다. ‘나는 요즘 몸과 마음이 모두 편하다.’와 같은 문장이 그 한 예를 보인다.
- (ii) ‘NP1 NP2-{에, 에게} 편하다’의 논항구조나 ‘NP-이 VP-기에 편하다’의 논항구조를 취할 경우에는 “쉽고 편리하다”의 의미를 가진다. ‘그 일을 하는 데는 저녁 시간이 편하다.’와 같은 문장이 그 한 예를 보인다.

이로써 우리는 구절 ‘便於日用’의 ‘便’은 결코 ‘편하다’로 번역되어서는 안 됨을 알 수 있다. 이 구절은 위의 (ii)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5.

이제 이 자리에서 언급된 사실들을 정리함으로써 이 발표를 마치기로 한다.

- (1) 훈민정음 서문의 ‘文字’는 현대어에서 [munja]라는 음성형식을 가지는 단어로서, “단어보다 큰 단위”의 의미를 가진다.
- (2) ‘國之語音이 與文字로 不相流通홀썻’라는 구절과 ‘나랏 말썻미 文字와로 서르 스뭇디 아니홀썻’라는 구절은 구어인 한국어와 문어인 문서가 중국과 서로 통하지 않음을 표현하고 있다. 전자는 역관에 의하여 통역이라는 절차를 거쳐 해소되어야 하며, 후자는 중국과의 외교관계상 주고받는 문서인 ‘吏文’이라는 독특한 문서를 통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 (3) ‘便於日用’의 ‘便’은 “convenient”의 의미가 아니라 “comfortable”의 의미를 가진다. 형용사 ‘편하다’의 논항구조를 볼 때 ‘日用에 편하다’에 사용된 ‘편하다’는 “convenient”의 의미를 가지고, “comfortable”의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 ‘便’을 ‘편하다’로 번역해서는 안 된다.

문자체계로서의 훈민정음이나 텍스트로서의 『훈민정음』과 관련된 사실들은 이미 거의 다 밝혀진 것으로 생각되지만, 사실은 아직 미진한 구석이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목격된다. 오늘의 발표는 주로 한국어 자체의 어휘나 구문의 성격을 살펴서 훈민정음 서문의 몇 구절을 재음미하여 새로움을 맛보고자 노력하였다. 이로써 우리는 ‘중세 한국어가 한자와 통하지 않았다’거나, ‘중세 한국어가 한자로써 통하지 않았다’거나 하는 식의 기묘한 해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문자체계인 훈민정음이 창제됨으로써 문자생활은 편리해졌는지 모르지만 그 문자를 사용한 사람들은 편리해진 것이 아니라 편안해졌다는 점이 새삼스레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Selected References

AHN, Pyong-hi (2007), “‘便於日用’ in the Preface to *Hunminjeongeum*,” *Studies in Hunminjeongeum*,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81~90.

- HONG, Yun Pyo (2008), "On the Phrase '與文字不相流通' in the Preface to *Hunmin Jeongeum*," *A Pioneer of Contemporary Korean Linguistics*, Sung Nyeong LEE, Taehaksa Press. 767~785.
- HONG, Yun Pyo (2012), "Some Claims about Hunmin Jeongeum," *Hunmin Jeongeum and Today: 2012 the Hunmin Jeongeum Society Conference*, 1~29.
- ITO, Hodeto (2011), "On the Cosideration and the Prospect of the Translation of Recent Chinese in Joseon Dynasty," *Proceedings of the 2nd Korea-Japan Conference on Korean Language · Culture*, 22~35.
- JEON, Seong Ho (2009), "The Internal Control Systems in the Reign of King Sejong,"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Leadership of King Sejong*, Jisiksaneopsa Press, 95~144.
- JO, Dong Il (2010), *A Study on the Civilization in East Asia*, Jisiksaneopsa Press.
- JO, Eui Seong annotated translation (2010), *Hunmin Jeongeum*, Toyobunko 800, Tokyo: Heibonsha.
- JO, Gyu Tae *et al.* (2007), "Studies on Investigating the Different Versions of the Translated Text of *Hunmin Jeongeum* and Reconstructing their Authentic Text,"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KOREA.
- KANG, Sin Hang (2003), "On 'The Correct Sounds (正音),' " *Studies on Korean* 1, 7~25.
- KIM, Kwang Hae (1989), "*Hunmin Jeongeum* and 108," *JuSiKyeongHakbo* 4.
- KIM, Seul-ong (2008), "The Comparative Study of Translation and Proposal for Standard Translation of the Preface by Sejong in the *Hunminjeongeum Haraeryebon*," *Korean Semantics* 25, 1~25, [This paper is given in Seul-ong KIM (2009), *King Sejong and Study on Hunminjeongeum*, Jisiksaneopsa Press, 236~268.]
- KWON, Deok Gyu (1923), *The some Details of Korean Language and Writing*, Gwangmunsa Press.
- LEE, Hyeon-hie (1991), "Some Discussions on the Different Versions of *Hunmin Jeongeum*," *Language Education* 21, 59~74.
- LEE, Hyeon-hie (2012), "The Words 'Hangeul (한글)' · 'Munja (文字)' and their Phonological Informations," *Hunmin Jeongeum and Today: 2012 the Hunmin Jeongeum Society Conference*, 1~14.
- LEE, Hyeon-hie (2012, forthcoming), "Deok Gyu KWON's Life and his Study on Korean Linguistics."
- LEE, Hyeon-hie *et al.* (forthcoming), *An Understanding of Hunmin Jeongeum*, Yeokrak Press.
- LEE, Sang-hyeok (1999), "Aspect of the Diachronic Change of Consciousness on the Character," *Korean Linguistics* 10.1, 233~256.
- LEE, Sang-hyeok (2004), *Hunmin Jeongeum and thr Study of Korean*, Yeokrak Press.
- NOMA, Hideki (2010), *The Birth of Hangeul: Sounds Create Letters*, Heibon shinsho

523, Heibonsha.

PAEK, Doo-Hyeon (2009), "An Analysis on Textual Structure of *Hunminjeongeum*," *Journal of Korean Linguistics* 54, 75~107.

PARK, Ji Hong (1984), *The Interpreted Hunmin Jeongeum: Research and Annototion*, Gwahaksa Press.

SEO, Min-Jeong (2011), "Two Translations of *Hunminjeongeum* Preface: 15th Century and 20th Century," *Kogito* 69, 29~52.